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원조효과작업반 제9차 회의 결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가 3.8-9간 Jan Cedergren 의장(스웨덴 외교부 대사) 주재로 파리에서 개최되어 2006년 실시한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제1차 설문조사 결과와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HLM) 준비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 OECD 회원국 외에 19개 수원국 및 10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우리나라도 non-DAC 공여국 중 유일하게 3개 수원국의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는바,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여타 공여국들의 성취도를 비교분석하고, 주요 결론과 권고사항을 우리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8년 2차 설문조사에서는 우리의 중점 개발원조 대상국에 대한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I. 핵심 내용

34개 수원국에 대한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 초안이 제시되어, 12개 지표에 대한 성취도 현황이 최초로 집계되었으며, 다수 회원국들은 금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향후 자국의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원조정책과 원조행태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밝힘.

2010년 목표연도를 앞두고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의 중간 점검을 목적으로 2008.9.4-6 가나 아크라에서 고위급포럼(HLHF)이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의제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2007.9.4-5 서울개최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대화 회의는 아크라 고위급 포럼 까지 중간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동 포럼 개최에 기여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II. 상세 회의 내용

### 1.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2006년도 설문조사 결과

2006년에 실시된 34개 수원국에 대한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1차 설문조사 결과가 2007.3월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금번회의에서는 결과 보고서(초안) 3개 부분 중 (1.설문조사결과 개관, 2. 국별 조사결과, 3.설문조사 통계) 설문조사 결과 개관 부분의 내용에 대해 검토함.

- Part 1. 설문조사결과 개관은 DCD/DAC/EFF(2007)6, Part3. 설문조사 통계는 DCD/DAC/EFF(2007)20 참조

- 34개 수원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여국들은 DAC 회원국 전부 및 ADB, AfDB, IDB, 세계은행, UN, 글로벌 펀드 등 다자개발기구가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non-DAC 공여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3개 수원국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회원국들은 최초로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파리선언 12개 지표에 대해

2010년 목표대비 현재 달성정도를 파악한 부분(chapter 1)과 조사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으나, 설문조사의 결론과 권고(chapter 3)에 대해서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여국들의 향후 정책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또한, 회원국들은 향후 과제로 공여국 본부와 수원국 현장(field) 간의 유기적인 연계, 재원의 예측가능성, 능력개발, non-DAC 공여국의 모니터링 참여 확대, 설문조사의 방법론 및 지침의 개선, national coordinator의 역할 강화, 수원국내의 공여국간 협의 과정의 중요성 등을 지적하였음.

- 사무국은 2008년 9월 아크라 고위급포럼 까지 시간이 촉박함을 감안하여 2008년 2차 설문조사는 2008.1월-6월간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함.

회원국들이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승인함에 따라, 결론과 권고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결과 보고서를 3.30일 까지 배포기로 함.

### 2.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HLM) 준비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 준비와 관련, 세계은행이 준비한 concept note [DCD/DAC/EFF(2007)4]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바, 가나는 동회

의가 2008.9.4(목)~6(토)간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국가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회원국들은 2008년 고위급 포럼이 파리선언의 이행을 중간 점검(2010년 목표연도를 향한 mid-term review 성격)을 목적으로 하며, 수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동지향적인 결과문서를 발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함.

- 다만 현재 제시된 의제만으로도 과중하므로 동 포럼 준비그룹(steering group) 회의 등을 통해 의제를 줄여가야 하며, 시범 연구분야(tracer sector)에 대해서는 보건과 교육분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나, 기간산업, 민간분야 등도 제시되어 계속 논의기로 함.
- 일부국가는 non-DAC 공여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며, 이들 공여국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초청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3. 산하 공동작업반(Joint Venture)의 작업 보고

#### 가. 정부조달 공동작업반(JV-PROC)

- 수원국 조달시스템의 품질과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스템의 표준 및 평가 방법

론(version 4)을 개발하여 왔으며, 2006.7월 승인된 신규 방법론을 시험 적용할 22개 시범 국가를 선정하였음.

- 동 시범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Pilot Orientation Workshops)가 지역별로 3차례 개최되고(아시아 지역 1회, 아프리카 지역 2회), 시범국가들은 자국 사례와 새로운 방법론에 따른 분석 자료를 제출할 예정임.

#### 나. 공공재정관리 공동작업반(JV-PFM)

- JV-PFM은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 능력개발 및 시행을 위해 PFM 개혁을 추진하며, PFM 성과측정을 위한 조화된 프레임워크(PESA 평가 프레임워크)의 실시를 모니터하고, 원조의 흐름(aid flows)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증진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다. 개발성과관리 공동작업반(JV-MfDR)

- 2007.2.5~8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 3차 원조성과관리 라운드테이블(40개, 수원국, 30개 공여기관, 500여명 참석) 개최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초점을 맞춰야 할 작업분야로 사례집의 개발, 원조성과관리의 필수적 분야로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증진, 공여기관의 효과성 향상, 능력측정프레임워크 등 적절한 도구 및 방법론 개발을 제시함.

#### 4. 회원국 주도 정책지침 개발 작업의 진행현황 검토

##### 가. 원조공여기관에서 동기부여 방안(Draft Good Practice Note)

- 영국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Draft Good Practice Note on Incentives for Harmonization and Alignment in Aid Agencies” [DCD/DAC/EFF(2007)7]은 공여기관의 인사관리, 기관관리, 예산과 보고, 정책과 절차의 측면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가는 동기부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보고서를 보완할 예정이라 하였는바, 상기 보고서는 우리의 원조집행기관의 운영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 나. 공여국 상호보완성 관련 작업

- 공여국의 개발원조상의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추구를 위해 현재 EU 회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할분담(division of labor) 작업내용에 대해 EC와 독일이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EC측은 동작업의 추진 일정으로 2007.10월까지 compendium 초안이 나올 예정이며, 2008월 2월 compendium 최종본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보고함.

#### 5. 차기 원조효과작업반 회의는 11.28-29에 개최될 예정임.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